

자비와 화합으로 펼쳐지는 수화사랑 음악회를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복지는 21세기 문화복지 시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수화사랑 음악회를 선보인다하니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복지문화의 장을 열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비의 쌀과 자녀들의 장학금 전달식도 한다고 하니 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의 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수화사랑 음악회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화합과 화목의 장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는 불교신앙을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연화직업재활원을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따스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해성스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광림사 신도들과 음악회 출연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꽃향기가 묻어나는 2010년 수화사랑음악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며, 연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4(2010)년 1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

20101212 2010'수화사랑음악회'및 후원의 밤